

自然과 開發의 조화가 목표

세계는 왜 구제를 필요로 하는가, 어떻게 세계를 구할 것인가

번역 오요한 IUCN·NGO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이사

세계자연보전전략의 지침

생물자원의 보호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이상에 초점을 맞춘 어프로우치를 진전시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정책 지침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이 전략의 목적이다. 전략중에서 취급되는 문제는 자연보전이 달성되느냐의 여부에 직접 관계하는 문제에 짜여 지고 있다. 즉 생태학적 프로세스와 생명유지 시스템의 보전, 유전학적인 다양성의 유지, 생물종과 생태계의 영속성 있는 이용등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보전의 효율을 올리는 것과, 자연보전과 개발의 통합의 양쪽을 성취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이 이 전략에서 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전략이라 할지라도 목적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무엇이 장해 인가를 확인한다.

○장해를 뛰어 넘기 위해서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을 제안한다.

갖고 있는 재원이 충분치 않고, 그러는 동안에도 마감시간이 닥쳐올 경우에는 모든 재원과 모든 노력을 최우선 과제에 다가 돌리는것이 가

장 중요하다. 그것보다 우선도의 낮은 과제는 뒤로 돌리도록 한다. 자연보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각색의 자연보호 조직 사이에서 우선순위에 의견일치를 본다는 것은 거의 무망하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것은 처리해야 할 긴급과제의 수가 방대하며, 사람에 따라 우선도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 원래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이란 없었기 때문이다. 둘이켜 말한다면 과제의 수가 많고, 그의 대부분이 절박하고 있으며 어느 문제의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연보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재정적, 인적)의 모든 것이거나 그 이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야 말로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일이다. 그 때문에 우선 첫째로 필요한 것이 우선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거기에는 세가지의 기준이 있다. 즉, 중요도, 긴급도, 불가역도의 세가지다.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물어보면 좋을 것이다.

○그의 요건이 다른 요건에 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

○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느냐의 여부로 어느 정도의 비율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전 지구적·광역적 또는 국내적으로

보아서) ?

○ 그의 요건에 의하여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일까?

○ 그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보전되는 자원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긴급도는 그의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악화하는 속도와 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하는 시간으로 결정된다.

불가역도는 자연보전의 성패의 열쇠를 쥐는 기준이다.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속에서 특히 생물자원에 그 이상 다매지가 가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 것과 같이 최고의 우선도가 부여된다. 더욱이 생물종의 절멸이나 유익한 동식물의 변종의 소멸, 중요한 생명유지 시스템의 붕괴, 토양의 엄청난 열화등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높다.

우선적인 문제의 분야

이상에서 진술한 기준을 써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것을 이하에 설명한다.

농약시스템 생산성이 높은 경작지는 원래 적은 고로 경지의 절은 점점 저하되어 가는데 식량 기타의 농산물에의 수요는 더욱 더 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경작에 적합한 토지는 농지로서 확보하여두고, 토지의 절을 높은 수준으로 보전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경지나 토양이 상실되거나 육종계획에 불가결한 유전적 자원이 사라져 가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식량의 공급을 지탱하는 생물학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전조이기 때문이다. 육지면적의 3분의 1을 뒤덮은 건조지에서는 특히 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곳에서는 사막화가 진행된 때문에 이미 약 8천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수는 금후 6억 3천만 명에 까지 달할 수도 있을 수 있다.⁽²⁵⁾

농업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제 2장에서 취급하기로 한다.

산림의 남벌에 의해 단지 귀중한 자연산물인 목재가 상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다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더욱기 수원역 (하천의 상유역)의 보전이라는 역할이 손상받는다. 수원역의 관리의 방법에 따라 세계인구의 적어도 반수가 영향을 받는다.⁽⁸⁾ 그것은 산악부의 인구는 10 %밖에 안되지만, 산에 인접한 저지유역에 40 %의 인구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은 열대우림이다.

저지 열대우림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기타의 산림에 있어서도 앞으로 겨우 20년내에 손을 쓰지 않으면, 산림을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때까지 산림이 보전되어 있지 않으면 산림이라는 생태계가 포옹하는 방대한 유전적 자원이 영구히 상실되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가 광역적으로 자칫하면 전지구적 규모로 악화 될지도 알 수 없다. 이런 문제들과 대항조치에 대해서는 제 3장에서 고찰한다.

해양 바다는 참으로 넓으니까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상처를 받지는 않을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바다속에서도 가장 생산력의 큰 연안 수역은 수질오염, 서식환경의 파괴, 낭획등 때문에 매우 심한 다메 - 지를 받고 있다. 어장과 그것을 지탱하는 연안의 습지대나 바다나 강의 물이 얕은 곳은, 세계최대의 야생동식물의 보고이다. 그러나 맹그로우브 (홍수림) 대나 澄等의 어장을 지탱하고 있는 장소에서 오염되었거나 황폐화되지 않는 곳이란 거의 없다.

이 이외에도 놀랄만한 중요한 해역이 있다. 특히 산호초등이 그것인데, 아직 연안의 습지대 정도까진 압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곳의 해역을 보전하는 행동을 지금 곧 시작하여 다행하게도 온대지방의 澄이나 열대산림 만큼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있다는 장점을 잘 살려 가야 할 것이다. 해양의 보전에 관한 문제는 제 4장에서 말하려고 한다.

생물의 절멸 수천, 어쩌면 100만이나 되는 생물종과 그 이상의 수의 변종이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에 손을 대면 좋은지 한 눈으로는 알 수 없다. 제 5 장에서 취급할 자연보전전략의 권고에 의하면 보호에 특히 힘을 써야 할 생물에는 세 가지의 타입이 있다.

첫째 타입은, 유전형질이 다른 생물종과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절멸하면 돌아킬 수 없는 큰 손상을 입게 되는 생물이다. 둘째 타입은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중요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생물이며 세째 타입은, 서식지가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번 구체책을 강구한다면 그의 그룹은 보호될 수 있는 생물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활동

보전의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개개의 문제분야마다 특유한 활동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사항과 관련하고 있다. 두번째 종류의 활동은 가장 근본적이다. 이 활동에 의하여 문제 분야를 불문하고 장해가 되는것을 치워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번째의 활동에서는 인구문제, 빙곤, 부자들의 과잉 소비등 문제의 뿌리 깊게 숨겨 있는 요인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자연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조항은 분야별로 다음의 장에서 상세하게 논술되어 있다. 그의 대부분이 자명한 대로이다.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경작에 적합한 토지를 농지로서 확보할 것.

○경작지가 높은 질적 수준을 보유하도록 관리할 것. 水源域의 산림의 보호

○어장의 유지 시스템의 보호

○오염의 억제

○생산종의 절멸방지, 작물, 사료, 제재용목재, 농업용 동물, 가축, 재배식물의 변종과 그의 야생종을 될 수 있는한 많이 보호할 것.

○보호구역에 대한 포괄적 시스템의 설정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의 규제, 생산자원의 남획을 중지할 것 등.

이러한 요구사항은 자명한 일이기는 하지만 무

시되는 일이 허다 하다. 그 하나의 이유는, 토지나 수역의 이용을 둘러싸고 쟁탈전이 심하므로 정부가 자연보호론자의 권고를 받아 드릴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보전론자가 추진하는 활동은 그것에 수반하는 귀찮은 이해 득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극단으로 질주하는 일이 많으므로 정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우량경작지를 농지로서 확보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좀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한것 처럼 생각된다. 식량의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수준의 높은 경작지는 적다. 실제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갓 거두워드리기에 문제가 없는 토지는 전 육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⁹⁾

또 우량농지의 위치를 움직이기는 불가능하나 건물이나 도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위치를 바꿀수가 있다. 이와 같이 생각 한다면, 토지의 용도로서는 농업용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토지의 사용 방도로서 농업용과 건설용의 목적만이 경합하고 있다고만 할 수 없다. 농지 확보의 필요성과 다른 자연보전의 필요성도 경합하고 있다. 예로서 습지를 간척한다면 우량 농지가 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어폐류의 중요한 온상이 상실되어 어장에의 영양공급이 끊겨 버린다. 또 산림을 벌채하여 경작지나 목초지로 할수도 있으나 대상으로서 숲에 사는 풍부한 생물종이 상실되어 이상적인 자연보호구역이 소멸해 버린다. 이와같이 대립하는 귀찮은 문제에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것인가를 표시하는 지침을 정부는 찾고 있다.

농지로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일급품의 토지에 대하여서는 다른 자연보전의 필요성 보다도, 농업용의 토지이용쪽이 물론 우선한다. 그러나 농지로서 무언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유전적 자원의 보호나 어업장소보전(연안 습지의 경우)의 필요성쪽이 농지로서의 중요성보다도 위가 된다.(건설용도등 비자연보호 목적의 용도보다는 농업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보전이 우선적으로 요망되는 사항을 달성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는 앞에서 논술한 제

2종의 활동을 게으르게 한 때문이다. 즉, 분야에 불구하고 장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연보전을 위한 조직화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또 자연보전을 미리 정체결정 프로세스에 넣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자연보전이 개발에 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못되고, 단지 방해가 되어 버리고 있다. 이러한 것의 전진을 막는 장해물에 대하여 세계자연보전전략은 주의를 하면서 고려하고 있다.

주요장해

자연보전의 전진을 막는 장해의 수는 많고 복잡하다. 그중 주요한 것을 이하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본다.

1. 생물자원의 보전은 특수한 활동에 불과하며 그것을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고려에 넣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이 없다고 하는 그릇된 신념.
2. 그런 신념때문에 자연보전과 개발이 산만하게 진행되어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것.
3. 환경계획이 부적절하다든가 토지나 물의 이용의 배분이 합리적이 되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불필요하게 파괴적으로 된 개발프로세스.
4. 입법조치가 적절하지 못한것. 조직화가 서툰것 (더우기 정부기관에 충분한 강제력, 조정능력이 부족하다) 훈련된 요원의 부족. 생물자원의 생산능력, 자연관리상의 선택지 사이의 이해득실 (트레 - 드오후),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의 결여, 그 때문에 보전능력이 없다.
5. 자연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표면적밖에 중요성이 인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를 포함해서 생물자원을 이용한다든가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것. 그 때문에 자연보전에 대하여 지지가 집중되지 않는다.
6. 발전도상국의 농촌지역과 같이 자연보전에 근거하여 개발을 진행시켜야 할 지역에서 그것이 실행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상과 같은 장해를 뛰어 넘을 필요성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생물을 구한다든지, 어느 지역만을 보호한다든지, 어느 특정의 환경에 미치는 인팩트를 경감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국의 자연보전 능력을 대폭 개선하고 영속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성공도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 버리고 가장 큰 실패의 그늘에 숨겨져 버릴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활동에 대한 전략의 권고는 이 종의 문제에 대상을 두고 있다. 이 권고는 각국 (미국이나 캐나다의 주와 같은 생물자원의 계획, 관리의 책임을 갖는 모든 정치 유닛트) 이 자연보전을 위해서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시작 되고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드혹크인 행동이나 과잉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더라도 그것은 대중요법에 그치고 자연을 유효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 전략의 전국적 레벨, 광역적 레벨, 국지적 레벨에서의 상세한 것과 그의 목적은 제 6장에서 논술되어 있다.

더욱 계속해서 이 전략은 국제활동에 대해서도 우선도를 정하고 있다. 자연보전활동의 대부분은 국내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중에는 국제적으로 관련시켜야 할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생물자원을 두나라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더우기 연안 200해리보다 먼 바다의 외양이 그것이다. 어느 나라의 활동이 다른나라의 생물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이산화유황으로 대기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산성비가 내려 다른나라의 고기가 죽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국제협력 없이는 이와같은 자원을 보전할 수는 없다. 또 인류전체의 존속에 불가결인 자원 (농작물의 유전학적 자원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국내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데도 불가결하다.

그러기에 열대림과 건조지, 유전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의 보호구역의 설정, 세계적 공유물 (해양, 기후, 남극등) 및 국제 하천과 해역에 대한 광역전략에 목표를 집중시켰다. 일련의

공동계획을 보전전략은 권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계획에 의하여 국제활동이 불가결한 분야의 활동이나 보전전략상 우선하는 다른 과제를 국내적으로 실행하는데 국제적인 지원이 부여될 것이다.

다른 전략도 또한 필요하다

발전도상국에서는 개인, 사회, 국가에 있어서 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어 생물자원의 이용도 지나치다. 그것은 인구증가나 국내 혹은 국가간의 불공정이 짜 맞추어져 빈곤이 초래되거나 악화된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구가 늘어 토지의 부양능력을 넘거나 대지주가 비옥하여 경작하기 쉬운 골짜기의 토지를 둑차지 하기 때문에 빈공의 공동체는 경사가 급하고 불안정한 기우린 쪽을 경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도 있다. 이와 함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천연자원이 결핍하고 무역도 불리한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산림, 어장, 기타의 생물자원을 지나치게 개발하여 절멸시키는 일도 드물지만 있다.

세계중의 많은 지역에서 인구증가라는 압력에 걸려 생물자원을 존속시켜 갈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수요가 늘어 가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최종적으로는 인구와 환경의 수용력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잘 생각하여 인구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자는 자원의 남용을 자숙하고, 이상으로서는 소비량을 감소시켜 폐착취자를 돋기 위해서 가진것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그의 장래는 어느 정도 부자들의 절약과 가진 부의 분배에 결려 있다.

자연보전과 개발의 쟁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도 몇개가 있다. 그의 모든것을 취급한다는 것은 자연보전전략에서는 할 수 없었다. 생물자원의 보전은 인류의 존속과 행복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조건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연보전전략도 그것에 필요한 전략의 하나에 불과하다.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의 전략, 인권옹호를 위해서의 전략,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의 전략, 인구문제에 대한 전

략등도 또한 극히 중요하다. 유엔이 준비한 신 국제개발전략에서는 이런것 중의 몇가지가 취급되고 있다. 그 이외의 전략도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전략이 잘 되어 가느냐는 다른 전략이 성공하느냐의 성패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역사상 처음으로 생물자원보호를 위해서의 세계전략을 지금에서야 우리들은 손에 넣고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것 들이다.

참 고 문 현

- (1) 뉴-델리발 농업성의 N·D 샤카르타로부터의 사신 : 1979년
- (2) R·W·데이 - 멜 비밀사항 · 농업연구, 미국 농무성, 워싱턴 : 1979년
- (3) 유엔 사막화 방지회의『총괄, 행동계획 및 결의』유엔, 뉴욕 : 1978년
- (4) 에릭크·엑크호름『상실되어 가는 대지 : 환경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세계식량의 전망』노-튼 : 1976년
- (5) D·C·더스<인도에 있어서의 토양의 보전의 실제와 침식의 억제 : 캐-스·스타디>『발전도상국에 있어서의 토양보전과 관리』에 수록 : 1976년 11월 26일에 로마에서 개최한 FAO전문심의회보고, FAO토양보고 33권 : 1977년
- (6) D·僻멘탈 외 <수탈된 토지 : 식량과에너지 - 자원에 미치는 영향> 「사이언스」, 194권, 149-53페이지 : 1976년
- (7) 환경수준협의회『환경수준』제 6차년 보고, 환경수준협의회, 워싱턴 : 1975년
- (8) 식량농업기관『로 - 칼 · 커뮤니티 - 개발을 위해서의 산림학』 FAO보고, 7권 : 1978년
- (9) 식량농업기관『식량과 농업의 현상』로 - 마 : 1978년
- (10) C·스타-링그(네덜란드) 「아트란딧크·먼스리」 : 1976년 10월
- (11) J·P·런리 - J·타레멘트 ·『열대지방에 있어서의 산림과 식림지의 현상과 미래』

- FO : MJSC 79/1, 식량농업기관, 로 - 마 : 1979년
- (12) 에이드리언 · 존슨 - <세계의 열대산림의 평가의 시도> 「언아시르버」 28권, 5-24 페이지 : 1976년
- (13) 헤르만 · E · 칸프 <합중국의 대서양 및 멕시코만 연안 어장의 오염이 경제에 미치는 인팩트> 「FAO 수산기술보고」 172권 : 1977년
- 프랑크 · J · 헤스터 - <합중국 서부의 바다와 소하어의 어상 오염의 영향의 경제적 측면> 「FAO 수산기술보고」 162권 : 1976년
- (14) 루카스, 그伦, 신지, 후후 『IUCN식물 렛드 · 데이터 북』 IUCN, 그伦, 1978년
- (15) 국제자연보호연합 『렛드 · 데이터 북』 IUCN, 그伦, 1975년, 렛드 · 데이터 북은 어류, 양서류, 과충류, 조류, 포유류에 관한 독립된 책으로서 때때로 개정된다.
- (16) 노 - 먼 · 머이야 - 즈 『가라앉는 노아의 방주』 베 - 가문 : 1979년
- (17) R·W·쉐리 - 『인류에 있어서의 식물』 프렌티 - 스 · 홀 : 1972년
- (18) 토마스 · E 러브죠이의 사신 : 1978년
- (19) 합중국회계검사원장관 「장래의 식량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양보전에 우선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는 국회보고 CEDI 77-30 : 1977년
- (20) 토니 - 스웨인 <의료 식물학에 있어서의 비교 식물화학의 중요성> 토니 - 스웨인 편 『현대 의학의 발달에 찾이하는 식물의 역할』에 수록, 하버드대학 출판 : 1972년
- (21) J·R·더 - 란 <종자작용> O·H·프랑켈 · J·G - 호 - 크스편 『작물의 유전적 자원의 현상과 미래』에 수록, 국제 생물학 프로그램 2권, 캠브리지대학 출판 : 1975년
- (22) 식량농업기관 『제 4 차 세계식량 씨 - 베이』 식량농업기관, 로마 : 1977년
- (23) 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서』 워싱턴, 1978년, 1979년
- (24) 유엔 사막화 방지회의 『사막화 : 그의 개관』 A/CONF 74/1, 유엔, 뉴요크 : 1977년
- [역자 : 註] 바이오포리티칼, 생물과의 관계에 서 본 정치학

의식개혁 9대 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풍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 · 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